마루·대청의 의미와 변용**

Meaning and Transfiguration of Maru/Taechong Space in the Modernization of Housing in Korea

金 鍾 仁*
Kim, Zong In

Abstract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coupled with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ru or wooden floor and Taechong or great hall of Han-ok or traditional Korean housing has experienced functional as well as physical changes to a remarkable degree.

The author made an analysis of the transfiguration of Maru/Taechong space(M/T) with relation to: 1)Madang or yard, 2)Anbang or inner room, 3) Hyon-kwan or vestibule.

1) In relation to Madang, interiorization of M/T by way of setting sliding glass doors has begun to appear.
2) In connection with Anbang, division of role/function is being observed as far as family entertainment and reception of intimate friends is concerned.
3) Owing to wider acceptance of Hyon-kwan space as a buffer zone system, the advent of Keo-sil or living room is thought to be facilitated.

The analysis, however, does not say that Keo-sil of modernized Korean housing might well be interpreted as the mere extension type of M/T of the vernacular housing.

1. 서

우리나라의 전통주거(한옥)에서 한국적인 특징을 든다면, 우리는 온돌(구들)과 함께 마루(내지는 대청[1])라는 주거부분이 갖는 두 가지 요소를 꼽

* 정회원, 계명대교수, 공학박사

** 본고는 필자가 지난 1988년 2월 일본 '오카나와 국제센터'에서 실시한 '류큐대학'주관의 「한일 주문화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보완가필하여 소개하는 것임.

1) 이와 비슷한 구조로는 중국주거의 '堂'과 일본주거의 '板間'을 들 수 있겠으나 이들은 한국주거의 마루·대청과는 기능면에서 엄연히 구분된다.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의 근대화, 서구화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전통주거의 특징적 요소는 크게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마루, 대청의 경우, 실제의 형태적, 기능적 측면에서는 물론 실명호칭경향면에서 온돌(방)이 보여주는 변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맞고 있다. 더우기 전자의 경우 비단 그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실(안방, 현관, 부엌 등의)과의 관계면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므로 해서 오늘날 주거공간 전반의 근대화를 논함에 있어서나, 우리나라 주거의 발전적 전개를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 긴급히 천착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통주거의 마루, 대청이 갖는 의미를 주거의 근대화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그 변용이 보이는 성격, 특징을 구명하므로써 현대주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거실공간'의 현대적 의미를 살피면서 이를 근거로 주거의 발전적 전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하고자 한다.

2. '마루·대청'의 어의적 고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루와 대청은 엄밀히 말해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마루'란 선사시대 주거부터 우리나라에 유래하고 있음에 비해 '대청'은 이 보다 훨씬 후인 고려조 이후에 생긴 말이라 볼 수 있다. 또 대청은 우선 '큰(大)' '청(廳)'이란 한자성어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규모면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큰것을 전제하면서 권위와 중심성을 연상하게 하는 '청'('관청,' '청사'등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과 복합되고 있어서 마루와는 구분된다. 곧, 구조와 재료면에서는 양자가 다 같이 널빤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지면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청'은 어디까지나 '마루'의 하위개념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개념은 한 뿌리에서 출발하여 각기 발전의 역사를 달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루가 원시주거의 고상식 주거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음에 비해서 대청은 한옥의 등장과 더불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마루가 갖는 원초적 기능은 그 상당부분이 대청으로 이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루'가 갖는 사전적인 뜻은 '말루(抹樓), 청사(廳事)'로서의 널반지로 된 구조물이라는 것 외에도, 산마루, 영마루, 용마루, 지붕마루 등의 용에에서 보듯 길게 등성이를 이루는 산이나 지붕의 꼭대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해서 마루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 따라서 처다볼 대상으로서의 신성한 장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마루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누마루, 툇마루, 쪽마루, 들마루, 행랑마루, 정자마루, 눈썹마루(토막집에 붙여질 경우)등의 이름이 붙여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대청'과의 합성어의 형태로 '대청마루'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대청'은 그것이 위치하는 장소가 주로 한옥에 한정될 뿐 아니라 어의면에서도 '방과 방사이'에 위치하는 '큰마루'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마루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요컨대, 마루와 대청은 그 발생의 역사를 달리하면서 후자의 경우에 어의가 크게 한정적으로 된다는데서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대청이 뒤에서 언급하게 될 '거실'의 발전적 전개를 1차적으로 가능케하는 교량적 의미를 제공하는 면이나 마루보다는 더욱 적극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루·대청의 기능적 의미

그러면 이러한 전통주거의 마루, 대청은 기능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 다음에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 공간에서 '신성한 곳---> 경조숭배의 장'으로의 기능의 정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상청을 차리거나 벽감을 설치하는 등의 경조숭배기능이 충실히 수행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주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락[2]의 장으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특히 이 공간이 안채에 속하는 안대청이나 마루인 경우에 그러하였다는 점이다. 남자주인은 사랑대청(사랑채를 별도로 갖출 경우)를 통해서 접객이나 명상 등의 수행장소로 사용하므로 해서 안(女)과 밖(男)이 엄격이 구분되는 대청마루의 용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거개의 경우 외기와 일체를 형성하는 반내부공간이자 반외부공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에 걸맞는 이용양태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품이나 곡식들을 수장하고, 비일상적인 각종 이용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며, 마당에서의 농작업중 잦은 휴식과 가사작업의 장으로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던 사실로 증명된다.

이러한 마루, 대청의 다양한 기능의 전개는 이 외에도 이 공간이 방과 방을 연결하는 결절공간으로서, 내부공간(방)과 외부공간(마당)을 연결하는 결절공간이자, 완충공간으로서의 두가지 특징면에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곳은 자연과 일체를 형성하면서 자연의 바람과 소리와 햇빛과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마당과는 일정한 레벨차이를 유지하되 방과의 레벨은 동일 수준으로 공유함으로 해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속의 조화'의 관계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특히 근대화와 맥락면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공간의 개방성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근대화에 부응해서 점차 폐쇄화된 공간 내지는 공간의 내부화로 치닫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마루·대청의 현대적 의미

그러면 마루, 대청의 이같은 전통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 이제부터는 이 점에 관해 좀 더 규명해 보기로 한다.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가옥구조도 그에 상응한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 마루, 대청과의 관련면에서는 이 공간의 내부화가 진전되게 되었다. 이는 사랑채 내지는 사랑방의 소멸화 경향과 함께 가옥구조의 겹집화 과정을 겪는 가운데 더욱 촉진된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당해공간의 내부화 경향은 비단 마당과의 공간적 단절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관, 안방, 부엌 등 타실과의 관련면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마루, 대청의 내부화의 배경으로 주거공간구조의 재편성(가옥구조의 겹집화, 사랑채의 소멸, 현관의 등장 등)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의식구조의 변화면에서 조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곧, 도시화의 과정에서 한 울타리안에 여러 세대가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열악한 주거사정(곧, 주택스톡의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자면 세대간의 생활의 분리 독립을 보다 확실히 해줄 물리적 장치가 필요했을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유리분합문을 설치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환언해서, 도시의 과밀한 주거생활에서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주변환경과는 물리적으로 확연히 구분 차단되는 내부의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불필요한 내방자나 도둑 등의 침입을 방지하고 소리나 시선상의 가간사(프라이버시)를 가구단위로 지킬 필요에서 마당의 건너편 가구(한 울타리내의)와는 공간적으로 차단되고 열쇠로도 잠글 수 있는 주출입구가 있는 이 부분의 공간에 유리문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써 밖에서 불어오는 흙먼지나 매연으로부터도 어느정도 보호받는 옥내생활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사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료면에서 유리의 보급이 동시에 보편화 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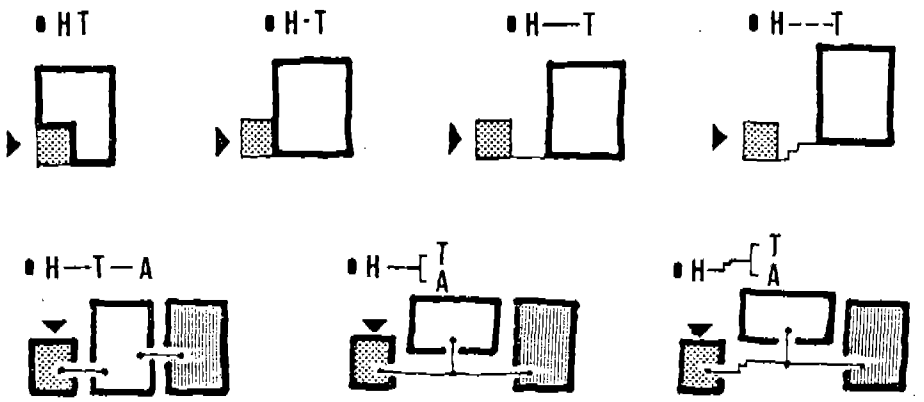
2) '가족단락'을 필자는 '즐거움'이 연상되는 적극적·활동적 행위개념으로서의 'family entertainment'로 이해한다. 따라서 보다 정태적 개념인 '가족단란'과는 구별하여 쓰고자 한다. 그것은 '단란한 가정'의 용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자의 경우는 정서적인 일체감을 보이는 가운데 주로 성원간의 구순함(말썽없이 의좋게 잘지냄)을 뜻하는데 잘 쓰이는 것이지만 '단락'은 단란지락(團欒之樂)의 줄임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까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또 사회상의 변천과 유교적 가정윤리의 변화로 가족단락의 패턴이 전통적인남여유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면서 개방적인 형태로 적극화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주인이 참여하는 가족성원간의 보다 활발한 단락의 장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어, 그 1차적 대상이 자연 안방과 함께 내부화된 마루·대청공간으로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마루·대청공간의 내부화의 배경을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이의 연장선상에서'거실'의 등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곧, 거실화와의 맥락에서 마루·대청의 발전적 전개나 내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공간에서 전개되는 생활 패턴이 실로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주부의 빨래손질을 위주로 한 가사작업이나, T·V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단락이 안방과 거의 구별없이 기능하는 '거실'이나, 전통적으로 안방, 사랑방에서 남녀장유로 나누어 영위되던 가족식사행위나, 주부의 취사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실(LK)' 기능이나, 안방, 사랑방, 건너방으로 성원별로 나누어 수행되던 접객기능이 하나로 뭉뚱그려져 이루어지는 '거실'기능을 오늘날의 당해공간에서 발견하는 외에도, 각실(방)의 연결동선공간으로, 비일상적인 생활의 장으로, 등 다양한 전개는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실간연결동선면에서 외부에서 곧장 집안으로 들어설때의 완충공간인 '현관'의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부터[3] 마루, 대청의 거실화는 한층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현관은 우리의 기거양식면의 특성상 반드시 주로 신발을 벗고 실내에 들어서거나 어쩌다 슬리퍼로 갈아신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이때 신발을 벗고 신는 동작이나 벗은 신발을 보관할 신발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전통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댓돌 위에서 주로 행해지며, 벗은 신발은 댓돌 위에 놓아 두는 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발류는 이를 마루·대청 아래 빈공간을 이용하여 보관하거나 별도의 헛간에다 보관하였다) 현관공간의 도입으로 이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되게 되었으며, 그것은 곧, 마루·대청의 내부화와 이에 이은 거실화를 촉진하게 된 강력한 요인의 하나로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림 1참조]. 이로써 '거실'의 등장이 본격화하면서 점차 주거공간내에서의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현관(H), 마루·대청(T), 안방(A)관계

3) 우리의 근대주거사에서 현관의 등장은 1920년대에서 비롯된다. 곧, 1923년 김유방에 의한 '문화주택설계안'이나 1930년 박길용의 '개량주택안'에서 평면에 현관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본격적인 보급은 '40년대의 '영단주택', '50년대의 '재건주택'시기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 '공사주택' '국민주택'의 보급이 일반화하면서 부터 였다고 할 수 있다.

5. 거실의 등장과 거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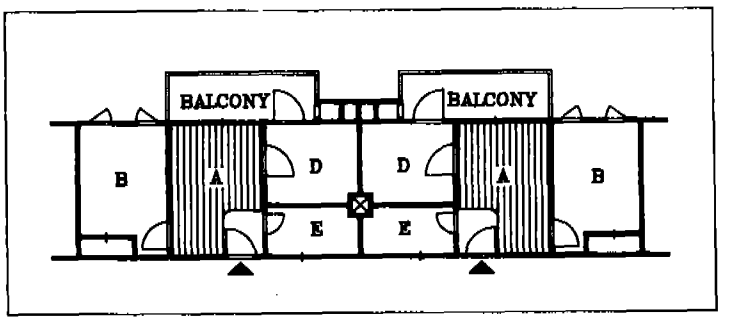
5-1. 거실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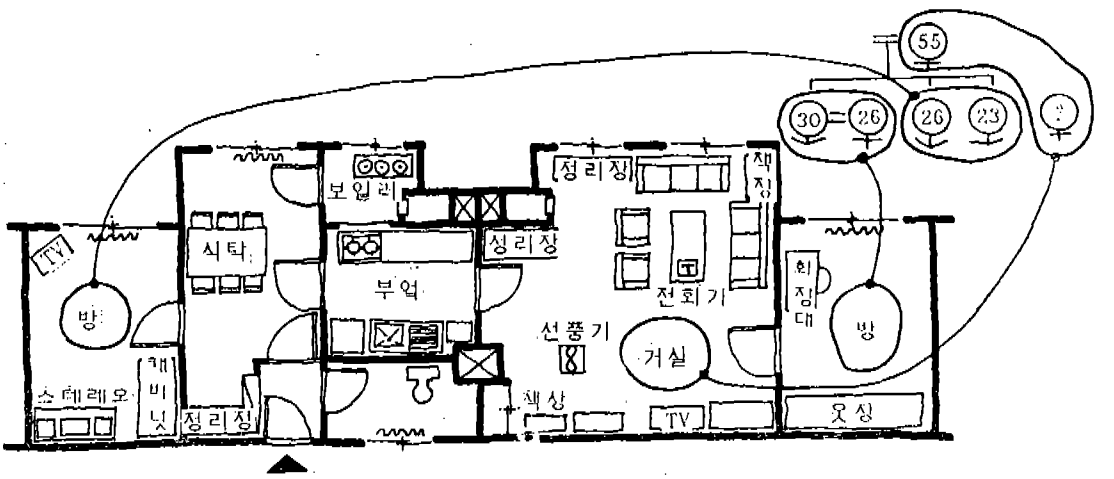
앞에서 필자는 '거실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실(living room)'의 등장을 주거의 근대화과정에서의 마루·대청의 발전적 전개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주거에서 '거실'은 어느정도 정착하고 있는 것일까? 또 '거실문화'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공간에서 전개되는 행위의 양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타실과의 관계를 규명하며, 당해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나 의식·태도를 밝히는 것으로써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거실화'라 하더라도 이는 단독주택에서 주로 보는 바와 같이, 마루·대청의 내부화라는 과정을 거쳐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와 겹집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또한 내부화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 그리고 아파트 와 같이 전혀 새로운 주거형식을 도입하면서 설계상의 '거실'호칭이 점차 이용자 수준으로 정착하게 되는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중 첫단계의 경우, 온전한 '거실'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마루·대청'의 내부화의 연장선상에서 한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두번째 단계의 경우, 우선 구조(현관이 추가되는 형식을 취하는 수가 많다)나 형상 및 기능면에서 서양의 '거실(living room)'에 가까운 '준거실'의 경우가 된다 하겠다.

이 단계의 내부화는 도시(단독)주택에서는 '60년대 이후 점차 보급되게 되었다고 보겠으나, 이와함께 농촌도 '70년대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주택을 본딴 이른바 '표준'이라는 이름의 겹집모델들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내부화된 '준거





〈그림 2〉 설계상 「거실」의 등장과 2주호통합에 따른 「거실」의 변용

실'공간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공급의 형태로 등장한 아파트의 해당부분 공간은 이를 '준거실'의 성격에서 '거실'로 근접시키는 강력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계획주택의 형식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공동주거로서의 아파트가 보급단계초기부터 설계상의 '거실'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림 2 및 표 1참조].

이 그림의 예는 필자가 1971년 8월에 서울 마포아파트(1962년 준공)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생활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초에 설계상으로 주어진 두 주호의 평면(삽입도 참조, 공칭 10평형의 인접한 1LK형식의 두 주호로서, A는 거실, B는 안방, D는 부엌, E는 화장실을 각각 나타내며, 이들외에 리빙발코니가 추가된 형식임)은 입주자에 의하여 통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왼편 주호의 A실은 식당으로, 오른편 주호의 (A+D+E)공간은 거실로, 거기다 양편의 발코니까지 모두 옥내공간으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구조변경되어 있는 당시(1971. 8)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해 단지에서 '저집은 마포맨션이다'고 할만큼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20평이 넘는 단지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로서 공칭 17평과는 비교가 안되 규모면에서도 획기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면을 입주자의 생활 요구에 맞게 대담하게 고친 한편에서 식당과 '거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대담한 구조변경도 사실은 미국의 대학에서 건축공부를 하고 갓 귀국한 시동생(26)의 아이디어에 힘입은 것이라고 조사에 응한 주부는 일러 주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면적을 확장하면서 종래의 '준거실'기능의 공간에 응접세트를 본격 도입하고, 실명호칭에 대해 묻는 물음에 '거실'이라 당당히 표기하면서 영어로 (living room)을 병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5—2. 실명호칭경향의 추이

그러면 이러한 '거실'공간이 실제 입주자들에게는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 것일까? 실명호칭경향에서 보는 한 아직은 이곳이 '준거실'의 단계에 머물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그것은 '마루'와의 관계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영 아파트의 보급초기이자 근대화의 초기에 해당하는 '60년대 초에 완성되고 입주를 끝낸 아파트(중산층 위주의 주민, 조사대상의 성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문헌1) 참조)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해실을 호칭하는 경향을 조사한 결과는 일부 '거실'과 함께 '응접실, 마루, 마루방'등으로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현관방, 바깥방' 등이 (소수예이긴 하나)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조사대상(이번에는 서민층 위주로 filter down됨, 참고문헌2) 참조)에 대해 7년을 경과한 후의 실명호칭경향을 재조사한 결과, '거실'호칭의 조심스런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루'호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이제 '현관방, 바깥방' 등의 다양한 호칭경향의 혼란은 어느정도 한정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거실'의 호칭경향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마루 또는 마루방'의 호칭경향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기조차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파트라는 주거생활양식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회귀에의 매력은 사람들의 의식의 한구석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을 뜻한다.

〈표 1〉 설계상의 '거실'에 대한 실명호칭 경향의 추이*

예수(%)

	마 루	응접실	거 실	마루방	큰 방	가운데방	현관방	바깥방	무응답	계
1971	14(25)	17(30)	7(13)	9(16)	3(5)	1(2)	1(2)	1(2)	3(5)	56(100)
1978	39(39)	23(23)	21(21)	11(11)	·	·	·	·	6(6)	100(100)

* 조사대상은 서울 마포구 소재의 마포아파트(1962년 준공)임.

5—3. 제2거실의 발생과 '거실'규모의 증대

거실문화를 얘기함에 있어 또 다른 척도의 하나로 제2거실에의 요구발생과 거실의 규모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후에 건축가들이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한 주택작품들의 평면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4]이 2층이상의 단독주택임) 상당예가 '거실'외에 또 하나의 '거실'을 층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5]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른바 '제2거실'이라고나 해야할 이 '거실'은 그 성격상 주로 서양의 '가족거실(family room)'에나 해당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이는 주거의 근대화의 맥락에서 좀더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제2거실 소유경향은 그 대부분이 집장사들에 의해 지어지는 도시단독2층주택('70년대 후반이후 발생)의 경우에도 발견되는데 이는 2세대 이상의 다가구가 층별로 각기 독립해서 입주함에 따른 필요에서 기인되는 결과라고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거실규모의 변화추이는 예컨대 단독주택의 경우 보급초기('60년대초)의 10㎡에서 20—30㎡로까지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신축주택의 절대규모가 그간 꾸준히 증대경향을 보이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으나, 앞의 제2거실의 발생경향과도 같은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표 2참조].

〈표 2〉 도시단독주택의 (안방·거실)규모 추이

	1964	1969	1974	1979	1983
대 지 면 적(㎡)	188.2	169.7	174.0	156.2	176.7
주택연면적(㎡)	43.3	48.2	92.1	106.0	132.4
안 방 면 적(㎡)	9.5	11.7	13.3	17.1	15.9
거 실 면 적(㎡)	9.5	14.1	21.2	22.7	28.2
평 균 방 수(개)	3.7	3.9	4.3	4.7	5.6

* 정준현, '단독주택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4. 12.

5—4. 안방과의 관계면에서 본 접객인지 성향

그러면 접객행위와 관련하여 이 거실공간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 것일까? 또 이 거실공간의 '응접실'로서의 기능정착도는 '안방'에 견주어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안방에서가 아닌 거실에서 대접 받는다면 귀하께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Q1)의 물음으로 태도조사를 실시한 한 자료[6]에 의하면, 1)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는 69%임에 비해 2) 다소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16%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서 접객과의 행위관련 인지에 관한한 '거실'은 상당히 높은 개방적 선호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안방이 아닌 거실에서 중요한 손님(특히 집안어른)을 접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Q2)의 물음에 대한 태도는 1) 안방에서 접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7%, 2) 안방이 아니어도 괜찮게 생각한다는 경우가 40%로 되고 있어서 중요한 손님대접에 안방을

〈표 3〉 접객으로 본 (안방·거실)의 인지태도

예수(%)

	1)	2)	기 타	계
Q1	44(69)	10(16)	10(16)	64(100)
Q2	30(47)	26(40)	8(14)	64(100)

* 조사대상은 대구시 황금동 소재의 황금주공아파트(1981년준공)임.
* 참고문헌 1)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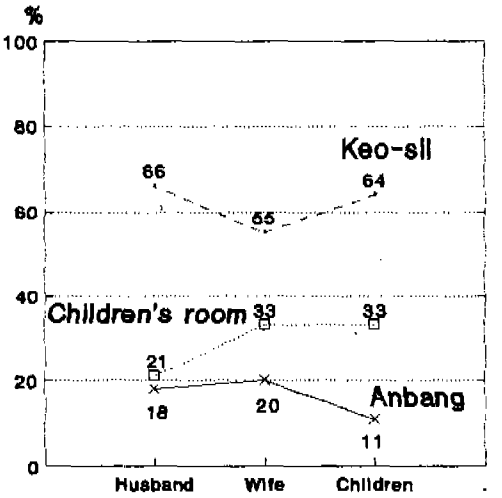
4) 185예중 175예로서 94.6%
5) 52예로서 28.2%
6) 김경아, 성경숙(지도교수 김종인), "도시서민아파트의 생활공간의 질에 관한 연구 : 주생활과의 대응을 중심으로," 1989년도 계명대학교 학생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보고서(미발표), 1989. 9.

우선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 자신이 타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안방응접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섭섭함을 보인 16%에 비해 크게 관대해지고 있어 흥미롭다[표 3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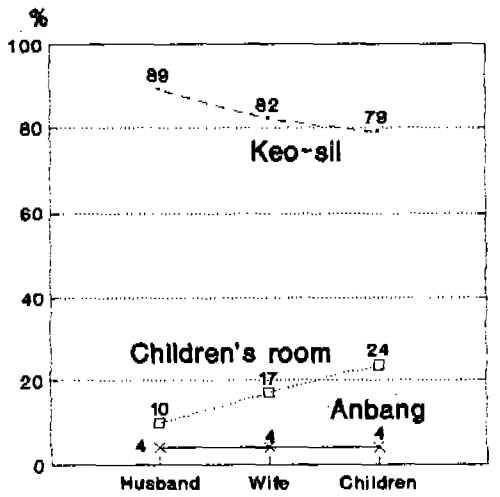
6. 논의 및 결론

위에서 마루·대청의 관계를 마루--->대청-->거실의 시간축상의 도식으로 발전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주거의 근대화 과정과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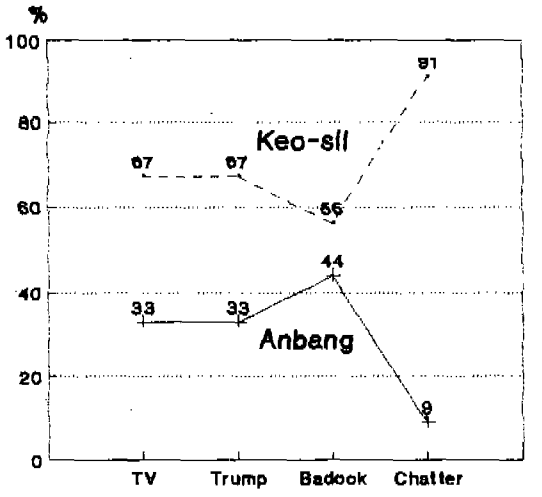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마루 문화'는 근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생활의 합리화·양화추구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맞으려 하고 있다. 당초 유리를 낀 마루분합문의 설치를 통한 내부화의 모습으로 출발하여 '준거실'의 단계를 거쳐 이제 '거실문화'를 꽃피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거실'은 그러나 서양의 거실(living room) 개념과는 크게 다른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응접가구의 보급으로 종래의 '앉는문화'가 '서는 문화'로 기거양식면에서 크게 바뀌고는 있지만 응접이나 가족단락기능은



〈intimate〉



〈formal〉



〈family entertainment〉

〈그림 3〉 응접·가족단락의 거실·안방간 역할분담*

* 참고문헌 1)에서 작성

어디까지나 안방과의 역할분담의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3참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마루·대청〉의 변용이 반드시 〈거실〉로의 발전적 전개를 스트레이트로 보여준다는 도식으로의 이해에는 아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종인, "주생활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건축 Vol.16, No.45, 1972.4.
2) 김종인 외, "서민 주공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연구," 건축 Vol.23, No.87,. 1979.4.
3) 김종인, 주택·주택지·학교, 대광서림, 서울, 1978.